

노인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Affecting Factors of the Elderly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mographic,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QoL) of the elderly. The data in the ‘Survey on the Elderly in 2011’, were collected from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amples included 3,312 out of the total of 15,146 elderly people aged from 65 to 70 yea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research mode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critical factor that affected the QoL of the elderly was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with other factors including “subjective physical condition level”, “depression”, “total annual income”,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 “self-esteem”, “economic supports from their adult children”, “education level”, “living with their adult children or not”, “sex”, and “home ownership”, in that order. Second, based on the path analysis results, the QoL of the elderly was influenced by “subjective physical condition level”,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depression”, “self-esteem”, “total annual income”, “education level”,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 in that order. In particular, “depression” had a negative direct effect and an indirect effect on the QoL of the elderly, whereas “self-esteem”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on their QoL. Third, “labor force participation status” did not affect the QoL of the elderly. However, it impli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their QoL. These results show that demographic,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heavily influence the QoL of the

elderly. Specifically, “depression” and “self-esteem” turn out to be mediating variables that strongly influence the QoL of the elderly. Also, “labor force participation status” does not have a positive direct effect on the QoL of the elderly but has a positiv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ir QoL.

Key Words :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생활수준(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주관적 건강상태(subjective physical condition level), 자존감(self-esteem),
우울감(depression)

I. 서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될 만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통계청, 2011).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걸어진 노년기 동안 경제적 문제, 건강 악화, 고독과 우울, 자녀의 부양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20세기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인을 비효율적이며 쇠퇴한 존재로 보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및 은퇴로 인해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역할상실로 인해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었다. 또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다(Rogers, 1995).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삶의 질 개념을 건강 중심의 협의적 개념에서 다양한 요인이 포함된 광의적 개념으로 확장시켜왔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정순돌·이선희, 2011). 또한 연령을 기준으로 노년기를 이전 세대와 분리하는 사고에서 성공적 노화를 바람직한 노년기 생활로 강조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이 활성화되어 왔다.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또는 낮추는 영향요인을 성별, 신체적·인지적 기능, 건강상태,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의 존재 등 개인적 요인의 차이에서 찾아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의 적응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활동이론과 성공적 노화의 관점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가 은퇴 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만족에 중요한 요인(Rowe & Kahan, 1997)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역할이론 역시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통제감, 우울감, 생활만족 등의 심리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은퇴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Sugisawa et al., 2002) 직업 및 사회활동을 통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은퇴, 역할 상실, 정체성과 자존감의 혼란 등 노년기의 문제와 적응과정에 대한 최근의 이론들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직업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개인적, 사회적 활동으로써 인간은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노년기에 있어 경제활동 참여와 적절한 소득은 최소한의 생존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허성호 외, 2011) 사회공헌, 건강유지, 사회적 소외와

고독감의 억제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갖기(권중돈·조주연, 2000) 때문이다.

노년기에는 가족과 친구의 상실, 소득과 직업의 상실, 건강의 상실, 인지적 감각적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점차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Tran, Wright, & Chatters, 1991).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덜 취약하고 회복력이 높아 노년기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윤명숙·이묘숙, 2012). 부정적 정서로 알려진 우울 또한 노년기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노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오창석, 2012; 임승희·노승현, 2011; 노병일·모선희, 2007). 노령으로 인한 실직은 불안감, 우울감, 고독을 가져다주게 되어 결국 자아존중감을 악화시키며(Koenig & Harold, 1995), 반대로 경제활동은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자아존중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만족수준을 높이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성재·장인협, 2003). 즉, 노년기의 경제활동이 자존감과 우울을 조절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노년기의 물질적 조건이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평가의 결과로 나타나는 만족 정도로 보고, 유사한 객관적 상황에서도 개인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삶의 질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는 어떤 개인 차이가 조건으로 작용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즉, 노인의 개인적 차이를 반영하는 요인으로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을 설정하였다. 경제적 특성 중 경제활동참여는 노인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시에 노인의 활동성 및 생산성을 의미하는 요소이므로,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 효과와 자존감 및 우울을 조절시키는 효과에 의해 삶의 질이 증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노년기의 가장 큰 심리적 문제인 우울과 반대로 긍정적인 정서인 자존감을 설정하였다. 특히 우울감과 자존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이 더 고무되거나 저하될 수 있는 매개효과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노인의 활동성을 반영하는 경제활동참여, 객관적 생활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심리적 특성 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과 그 경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확인된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통해 노인의 노년기 삶에 대한 적응능력을 증진시키고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적으로 노년기의 삶을 위한 준비의식과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삶의 질 개념과 이론적 접근

삶의 질이란 행복, 만족, 긍정적 정서, 사기 등의 개념이 내포된 주관적 안녕을 의미하며 인간의 안녕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삶의 질은 한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특성, 환경과 같은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Newgarten, Havighurst and Tobin, 1961)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 진입을 기점으로 사회 전반에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객관적 상황만으로는 노인 개인의 만족이나 행복감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견해가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삶의 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다면적으로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한형수, 2008;

남기민 · 정은경, 2011; 오창석, 2012; 신성일 · 김영희, 2013).

삶의 질은 삶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경험들에 대한 만족상태로 정의(남기민 · 정은경, 2011)되기도 한다. 따라서 삶의 질을 삶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는 연구들(정순돌 · 이선희, 2011; 정진경 · 김고은, 2012; 박순미, 2011)이 있다, 이때 삶의 만족은 개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양적, 경제적, 물질적 생활 여건뿐 만 아니라 주관적인 생활만족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박순미, 2011), 과거의 삶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보편적으로 만족하는 정도(김미혜 · 김혜선, 2004)를 의미하는데 특히 노인에게는 자신의 일생에 관한 행복 및 생의 목표 달성과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처럼 삶의 질은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과 혼용되어 사용될 만큼 주관적 측면이 강조되므로, 삶의 질을 설명하는 이론과 관점도 다양하다. 노년기의 특성과 삶의 질을 관련시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활동이론(Activity Theory),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Approach) 등이 있다. 활동이론은 노년기의 적응과정에서 사회적 역할과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년기에도 적절한 수준의 활동을 유지함으로써 활력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론이다. 산업사회에서 노년기라는 시기적 근거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일종의 제도화되어 왔는데(정경희 외, 2006), 노인이 생물학적 쇠퇴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서 물러나는 것이 불가피하며 기존의 노인이 했던 역할을 젊은이로 교체하는 것이 사회 유지에 기능적이라고 보는 분리이론이 이를 뒷받침해왔다. 분리이론이 노인의 활동을 제한하고 노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와 대조적인 활동이론이 노년기의 문제, 특히 은퇴 후 적응문제에 대한 지배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Katz, 2000).

활동이론의 맥을 잇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다(정경희 외, 2006). 성공적 노화에 대한 대표적 모델을 제시한 Rowe 와 Kahn(1987)은 노년기의 기능 쇠퇴에 적응하기 이전에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적 역할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성혜영, 2005에서 재인용). 활동이론 및 성공적 노화의 패러다임은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과 생산적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한경혜 · 홍진국, 2000). 즉, 성공적 노화는 노인의 일을 통한 경제적 안정, 생산적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노년기의 경제활동은 안정된 소득, 사회공헌, 건강유지, 사회적 소외와 고독감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기(권중돈 · 조주연, 2000) 때문이다.

한편 노화로 인해 노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환경 의존적이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 관련 요인들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윤정 · 안정신 · 강인, 2008; 신경인, 2009; 남기민 · 정은경, 2011; 신성일 · 김영희, 2013). 생태학적 관점은 노인의 삶의 질이 개개인의 신체적, 지적, 성격적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 기회에 달려 있다고 보며(남기민 · 정은경, 2011), 포괄적인 환경과 노인의 상호작용이 삶의 질에 주는 영향을 중요시하는 관점이다. 이때 환경에는 가족 이외에 지역사회, 광역환경을 포함시키며,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들은 인구학적 요인,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요인 등으로, 사회환경요인은 사회활동, 지역사회활동,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생태학적 관점 역시 노년기 삶의 질에서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노년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특히 경제활동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노인의 경제활동은 소득효과를 통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며,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활동

성은 삶에 활력을 주고 자존감 및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을 조절함으로써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고찰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부터 노인의 개인적 차이를 반영한 인구학적 특성, 객관적 및 주관적 경제 상태를 반영하는 경제적 특성, 그리고 심리적 특성의 세 가지 변수군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중 노인의 연령은 심신의 건강상태와 활동성, 경제력 등과 관련된 요인이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인들을 모두 동일한 연령 집단으로 보는데 무리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노년기를 전기, 후기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김미령(2012)은 노인을 고령노인과 중고령노인으로 나누어 연령 간 삶의 질을 비교하였는데, 고령노인은 중고령노인에 비해 독립적 경제력이 낮으며 공적연금 가입율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후기노년기의 삶의 질이 취약해질 것으로 지적하였다. Hilleras et al.(2001) 또한 후기노년기에는 건강과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므로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별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은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김미령(2012)은 노인의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여성 고령자가 남성고령자 및 남녀 중고령자에 비해 질병, 우울, 독립적 경제력 특성 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나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우울수준이 경우 남성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더 높고 건강상태가 나쁘며 배우자의 사망과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더 높아 삶의 질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반면 역할이론에 의하면 남성노인이 은퇴 후 경제활동 및 사

회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지 못할 경우 직업 상실로 인해 오히려 여성노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삶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Aquino, et al., 1996). 그러나 성별 자체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활동과 심리적 요인에 의해 삶의 질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김수현·강현정·김윤정, 2008; 김윤정·안정신·강인, 2008; 남기민·정은경, 2011).

교육수준은 권중돈과 조주연의 연구(2000)에서 삶의 질에 가장 강력한 영향 변수였다. 정순돌과 이선희(2011), 허성호 외(2011) 또한 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면서 고학력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현상은 노화에 따르는 적응 능력이나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유리한 지위 획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노년기 삶에서 배우자의 존재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는데, 노부부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부부동반자적 관계의 질 또한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켜주는 반면 배우자의 상실은 소외감, 고독감을 줄 뿐 아니라 여자노인에게서는 경제적 곤란과 생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다. 따라서 유배우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사별이나 미혼인 독거노인에 비해 높으며(권중돈·조주연, 2000), 성공적 노후를 이루는데 특히 배우자 유무가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김미혜 외, 2005).

자녀동거여부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2011년 노인실태조사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27.3%이며, 노인부부 또는 독거 노인가구가 68.1%에 달하고 있다. 또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1994년의 40.4%, 2004년 55.0%에 비해 급증한 것을 볼 때, 더 이상 자녀와 동거는 보편적 형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정경희, 2012). 그러나 정진경 등(2012)은 자녀

와 동거하는 노인이 비동거 노인보다 지원을 주고받는 지원교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 자녀 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노부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노년기 삶에서 건강상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노인의 객관적 건강상태 뿐 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정순돌·이선희, 2011; 김미령, 2012; Edwards & Klemmanck, 1973)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Berg et al.(2006)은 객관적 건강상태보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김미령(2008)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의 건강 관련 변수로서 질병 및 만성질환 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노인이 처해있는 경제적 여건은 삶의 질과 관련하여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들은 경제 상태나 지위가 낮을수록 더 불행하다고 느끼며(Ball & Chernova, 2008; Chou & Chi, 2002), 실업이나 빈곤이 문제 음주, 우울, 불행감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윤명숙, 2007). Klemmack 과 Roff(1984)는 경제력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높은 수입과 경제적 안정은 노인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력은 삶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경제상태의 직접적인 영향 보다는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박경희(2005)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수입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김미령(2012) 또한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남녀 고령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은퇴와 사회활동의 감소로 생활의 범위가 축소되는 노년기에는

관심과 접촉대상이 가족에게로 집중되는데, 가족은 현금 및 현물 등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주요 근원이다(정경희, 2012). 즉, 노년기에 가족과의 접촉빈도, 자원 제공 등이 삶의 질과 관련되며, 특히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은 실질적인 지지와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년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활동은 경제활동과 그 밖의 취미, 학습, 봉사활동 등의 비경제활동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발달하고(조주연·권중돈, 2000; Berg et al., 2006; Roh, 2010), 이는 상실하였던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찾게 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체감 발달과 자신의 삶을 통합적으로 영위하게 하고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조주연·권중돈, 2000; 김미령, 2006; 김동배·박은영, 2007; Bengstone & Peterson, 1972; Riddick, 1985; Steinkamp & Kelly, 1987). 사회적 활동 중 경제활동은 단순한 수입전략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자립심과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허성호 외, 2011). 직업 활동이 어려워지는 노년기에 직업 활동을 계속하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결과(김미령, 2008)나 임금노동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김동배·박은영, 2007), 취업이 남녀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 요인임을 보고한(정순돌·이선희, 2011) 결과들은 근로소득이 노년기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노년기에도 취업과 같은 활동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핵심이라는 Shephard(2001)의 견해나 경제활동이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자아존중감을 유지시켜 삶의 만족수준을 높이는 영향을 준다는 견해(최성재·장인협, 2003)들은 노인의 경제활동이 소득효과 뿐 아니라 자존감과 역할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은 우울감을 낮추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ugisawa et al., 2002).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노인에게 결정적인 대처자원(Rodin & Langer, 1980)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은 낮은 노인에 비해 노년기의 역할 상실이나 변화에 잘 적응한다(Butler, Lewis, & Sunderland, 1998).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이다. 김연희와 김기순(2002)은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질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강이주(2008)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심리적 특성으로서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노인들이 퇴직으로 노동현장에서 소외되거나 만족스러운 일을 갖지 못하여 사회기능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상실하게 되면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게 된다(허성호 외, 2011)는 결과는 자존감이 경제활동의 매개요인으로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와 사회적 지위의 변화 등 다양한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노인의 삶의 질에서 자존감과 함께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우울이다. 신성일과 김영희(2013)는 메타 분석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였는데, 심리변인군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으며, 심리변인군 중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한편 우울감의 삶의 질에 대한 매개적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조절효과 모델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이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삶의 질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하며, 사회적 활동이 높은 사람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이 우울을 조절하여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다(노병일·모선희, 2007).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남기민과 정은경(2011)의 연구에서 사회활동은 삶의 질에 직접효과와 우울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즉, 여성독거노인의 사회활동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뿐 아니라 우울이 감소되어 간접적으로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 삶에 대한 이해와 노후의 만족한 삶, 행복 등이 더욱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활동적으로 노년을 보내는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된 쇠약하고 비활동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하는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되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인의 다양한 배경과 인식을 반영하는 요인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고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심리적 특성의 매개변수로서의 효과 및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노인의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심

리적 특성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이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경로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학연구원에서 조사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국적으로 조사된 노인 15,146명 중 지금까지 전혀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노인을 제외하고 비교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노인 3,3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인 노인의 삶의 질은 건강상태, 경제상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의 3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는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 질환수), 경제적 특성(주관적 생활수준, 생활비부담, 본인의 연간총소득, 부동산액, 금융자산액, 부채액, 주택소유, 자녀의 경제적지지, 현재 경제활동여부) 등을 선정하였다. 매개변수인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존감과 우울감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삶의 질	건강상태, 경제상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전혀 만족하지 않음 2=만족하지 않음 3=그저 그렇다 4=만족 5=매우 만족
독립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년)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수 경제적 특성 주관적 생활수준 생활비부담 연간 총소득(만원) 부동산액 금융자산액 부채액 주택소유 자녀의 경제적지지 현재 경제활동 심리적 특성 자존감 우울감	1=남성 0=여성 만 나이 교육받은 연수 1=배우자 있음 0=배우자 없음 1=자녀와 동거 0=자녀와 비동거 1=매우 나쁨 2=나쁨 3=보통 4=대체로 좋음 5=매우 좋음 의사 진단에 따른 만성질환의 수 1=하층 2=중하층 3=중류층 4=중상류층 5=상류층 1=본인부담 0=자녀 또는 국가 지원 지난 1년간 본인의 소득 총합계 본인 소유의 부동산 총액 본인 소유의 금융자산 총액 본인의 부채 총액 1=자가 0=임차 1=자녀의 정기적 현금지원 0=자녀 지원없음 1=현재 소득이 되는 경제활동 참여 0=비참여 자신의 기억력, 슬모, 기력, 외출선호에 대한 수준 1=하 2=중하 3=중 4=중상 5=상 의욕, 삶의 지루함, 미래에 대한 절망감, 희망에 대한 수준 1=하 2=중하 3=중 4=중상 5=상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등 전반적인 집단 특성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노인의 자존감 및 우울감, 삶에 질에 미치는 독립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각각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노인의 자존감과 우울감은 삶의 질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이며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가족특성, 경제적 특성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노인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노인 중 남자는 1696명, 여자는 1616명으로 남성 노인의 비율이 여성 노인보다 약간 많았다(표 2). 전체의 79.5%가 배우자 있는 집단이었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29.7%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노인의 비율이 71.2%였으며, 78.9%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38.1%였다. 조사대상 노인의 평균연령은 67.65세이며, 교육수준은 평균교육기간 7.41년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06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좋은 상태였으며, 객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의사진단에 의한 만성질환의 수는 평균 2.21개로 노년기에

있는 대상자들이 2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의 주관적 생활수준은 평균 2.58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본인의 연간총소득은 평균 1089만원으로 한달 평균 90만원 수준이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액은 평균 약 1억7천만원, 금융자산액은 평균 1699만원, 부채액은 평균 1,739만원이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은 49.4%로 절반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자존감은 평균 4.11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우울감은 2.013점, 삶의 질 수준은 15점 중 평균 9.55점이였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를 포함한 경제활동특성의 빈도와 평균을 알아보았다(표 3). 종사상 지위로는 자영업자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무급종사자 17.8%, 임시근로자 12.8%, 일용근로자 10.1% 순이었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한편 무급종사자,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에 대한 소득이 지급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41.3%에 달한다. 반면 안정적인 지위와 소득이 기대되는 상용근로자와 고용주는 7.3%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일자리의 안정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이유는 ‘생계비를 위한’ 경우가 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용돈’을 위한 경우가 5.8%, ‘건강유지’ 3.8%, ‘시간 보내기’ 3.1%, ‘능력 발휘’ 1.7%, ‘경력 활용’은 1.4%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초기 노년기에 있는 조사대상 노인들은 노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비를 조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계를 위해 일하는 상황은 ‘현재 일 지속의향’에도 반영되는데, 일을 계속 할 의향을 가진 91.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에 비해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은 의향을 가진 노인은 6.4%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노인

이 일을 필요로 하거나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업에 종사한 기간은 평균 24.84년으로 노년기 이전에 하던 일을 장기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0.5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매우 길다. 한편 노인들의 일자리 만족도는 평균 2.54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불만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대상 노인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연간총소득이 1,089만원(표 2 참고)으로 월 평균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노년기 이전부터 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2〉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경제적, 심리적 특성 및 삶의 질

N(%)=3,312(100)

성별	남자	1,696(51.2)
	여자	1,616(48.8)
배우자유무	유배우	2,633(79.5)
	무배우	679(20.5)
자녀동거여부	동거	982(29.7)
	비동거	2,329(70.3)
생활비부담	본인부담	2,357(71.2)
	자녀, 국가지원	955(28.8)
주택소유	자가	2,615(78.9)
	임대	697(21.1)
자녀의 경제적 지원	지원 있음	1,262(38.1)
	지원 없음	2,049(61.9)
현재 경제활동	참여	1,636(49.4)
	비참여	1,676(50.6)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67.65(1.661)
교육수준(년)		7.41(4.475)
주관적 건강상태(5점)		3.063(1.019)
만성질환수(개)		2.210(1.683)
주관적 생활수준(5점)		2.58(.724)
연간총소득(만원)		1,089(1159.7)
부동산액(만원)		1,7049(34578.9)
금융자산액(만원)		1,699.2(5597.4)
부채액(만원)		1,739.8(5534.9)
자존감(5점)		4.117(1.104)
우울감(5점)		2.013(1.248)
삶의 질(15점)		9.550(1.892)

〈표 3〉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일 관련특성

(N=1,636)

		빈도	%	
현재 경제활동의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723	44.2	
	무급가족종사자	291	17.8	
	임시근로자	210	12.8	
	일용근로자	174	10.7	
	상용근로자	84	5.1	
	고용주	37	2.2	
	기타	117	7.1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생계비 마련	1354	83.0	
	용돈 필요	95	5.8	
	건강유지	61	3.8	
	시간 보내기	50	3.1	
	능력 발휘	28	1.7	
	경력 활용	23	1.4	
	기타	19	1.1	
현재 일 지속 의향	계속 일할 생각임	1486	91.1	
	다른 일로 전환 희망	41	2.5	
	은퇴 희망	105	6.4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 지속기간(년)	1	70	24.84	18.601
주당 평균근로시간	1	90	40.59	19.793
일자리 만족도	1	5	2.54	.962

※ 문항중 결측치를 포함한 경우가 있음.

2.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존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의 자존감에 대한 설명력은 32.1%이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주관적 생활수준, 현재 경제활동여부, 교육수준, 만성질환수, 연령 등이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느낄수록, 주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자존감이 높았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았다. 또한 만성질환수와 연령이 적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건강상태, 경제상태, 자원봉사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윤명숙·이묘숙(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우울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는 주관적 생활수준,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현재 경제활동여부, 만성질환수, 부동산액, 소득액, 배우자 유무, 금융자산액의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이들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28.7%였다. 노인이 건강상태를 양호하다고 느낄수록,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우울감이 낮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남자노인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만성질환수가 많을수록, 본인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산액이 적을

〈표 4〉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3,312)

	자존감		우울감	
	B	β	B	β
성별	.018	.008	.218***	.087
연령	-.032***	-.048	.078***	.103
교육수준(년)	.016***	.062	-.024***	-.084
배우자유무D	.045	.016	-.121*	-.039
자녀동거여부D	.043	.018	.031	.011
주관적 건강상태	.325***	.300	-.292***	-.238
만성질환수	-.037***	-.057	.046***	.062
주관적 생활수준	.206***	.134	-.348***	-.200
생활비부담D	.084	.035	-.098	-.036
총소득(만원)	1.36E-5	.014	-4.43E-5*	-.040
부동산액(만원)	-1.02E-6	-.031	1.66E-6*	.045
금융자산액(만원)	4.81E-6	.024	-8.78E-6*	-.039
부채액(만원)	-4.34E-6	-.021	4.64E-6	.020
주택소유D	.021	.008	-.061	-.020
자녀의 경제적지D	.037	.016	-.052	-.020
현재 경제활동D	.171***	.077	-.209***	-.084
상수	4.052***		-.842	
R ² (Adj. R ²)	.325(.321)		.291(.287)	
F값	92.098***		78.387***	

D : Dummy variable * p < .05 ** p < .01 *** p < .001

수록, 무배우자인 경우 우울감이 높았다. 남자노인의 우울감이 여자노인에 비해 더 높은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가정 내 지위 및 역할 상실, 고립 등에 의한 것이라는 이민수 외(2000)의 견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인의 자존감과 우울감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다. 만성질환수 역시 두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신체적 건강상태가 노인의 심리적 건강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울감은 자존감에 비해 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별과 배우자유무는 자존감에는 영향력이 없으나 우울감에는 영향을 미치며, 특히 배우자유무는 우울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제적 특성인 총소득, 부동산액, 금융자산액은 노인의

자존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우울감에는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연령이 많아질수록 신체적 노화, 건강 악화, 배우자 상실 및 소득 감소의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생활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총소득액, 만성질환수, 자존감,

〈표 5〉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3,312)

	삶의 질	
	B	β
성별	-.098*	-.026
연령	.013	.012
교육수준(년)	.017**	.041
배우자유무D	.035	.007
자녀동거여부D	-.150***	-.037
주관적 건강상태	.565***	.307
만성질환수	-.053***	-.047
주관적 생활수준	.915***	.348
생활비부담D	.101	.024
연간 총소득(만원)	.000***	.062
부동산액(만원)	-4.485E-7	-.008
금융자산액(만원)	-1.536E-6	-.005
부채액(만원)	4.038E-6	.011
주택소유D	.108*	.023
자녀의 경제적지지D	.167***	.043
현재 경제활동D	.017	.004
자존감	.079**	.046
우울감	-.237***	-.157
상수	3.753***	
R ² (Adj. R ²)	.643(.641)	
F값	303.541***	

D : Dummy variable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의 경제적 지원여부, 교육수준, 자녀동거여부, 성별, 주택소유의 순으로, 변수들의 설명력은 64.1%였다. 자신의 생활수준과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지할수록, 총소득액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집단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반면 남자노인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만성질환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낮았다. 그러므로 조사 대상 노인의 삶의 질은 개인적 특성, 자녀 관련 특성, 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 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태가 더 열악하며 무배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우울과 고독을 경험하며

삶의 질이 더 낮다는 선행연구(남기민·정은정, 2011; 림금란외, 2011)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성 노인의 삶의 질이 더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이 은퇴로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할 경우 상실감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역할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삶의 질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높은 현상은 정경희(2012)의 지적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자녀동거가 이미 보편적인 가족유형이 아니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생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김동배·박은영, 2007; 정순돌·이선

희, 2011; 허성호 외, 2011; Shephard, 2001)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보고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주로 자영업, 임시직, 일용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들로 젊었을 때부터 해왔던 자영업이나 농업을 계속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에도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았던

노인의 생활만족도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김미숙·박민정, 2000; 이정화·한경혜, 2003)은 노년기 경제활동참여와 삶의 질의 관련성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분석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

<표 6>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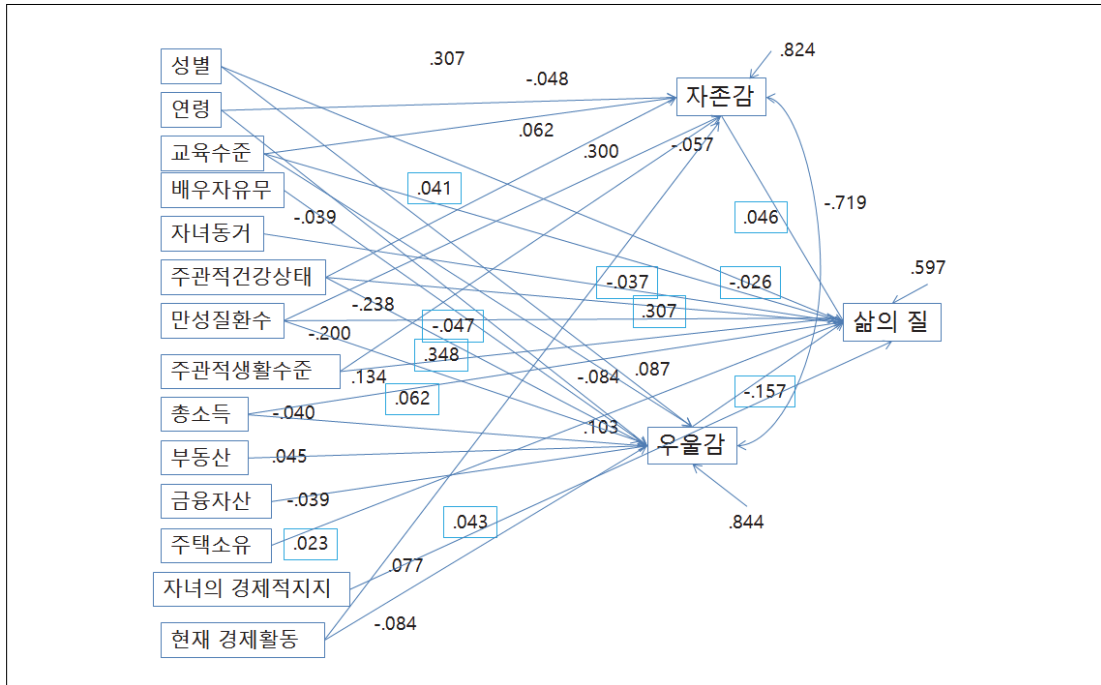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	1.0										
2	-.116	1.0									
3	.657	.231	1.0								
4	.092	-.201	-.550	1.0							
5	-.043	.263	.320	-.195	1.0						
6	-.063	.387	.255	-.194	.325	1.0					
7	-.001	.272	.171	-.134	.306	.485	1.0				
8	.040	.207	.092	-.068	.240	.275	.270	1.0			
9	-.101	.220	.523	-.352	.325	.225	.123	.101	1.0		
10	.155	-.216	-.440	.303	-.370	-.219	-.111	-.119	-.719	1.0	
11	-.083	.302	.657	-.421	.598	.347	.236	.165	.530	-.539	1.0

1.연령 2.교육수준 3.주관적 건강상태 4.만성질환수 5.주관적 생활수준 6.연간총소득
7.부동산액 8.금융자산액 9.자존감 10.우울감 11.삶의 질

* 각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것은 노인들이 능력을 발휘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 일을 선택하기 보다는 생계를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경제활동의 이유, 그리고 일 지속의향에서도 입증되는데, 생계를 이유로 일하는 노인이 선택적 이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 지속의사를 가진 노인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대상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직업안정성이 낮은 일을 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활동이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경제활동참여가

경제적 특성의 상대적인 영향력, 그리고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명목변수를 제외한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중에서 부채액을 제외한 변수들이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r=.657$)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주관적 생활수준($r=.598$), 우울감($r=.539$), 자존감 D : Dummy variable



〈그림 1〉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경로모형

〈표 7〉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 효과 분석

(N=3,31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별	-.026	-.016	-.042
연령	-	-.026	-.026
교육수준(년)	.041	.026	.067
배우자유무D	-	.016	.016
자녀동거여부D	-.037	-	-.037
주관적 건강상태	.307	.093	.400
만성질환수	-.047	-.009	-.056
주관적 생활수준	.348	.022	.370
연간총소득(만원)	.062	.007	.069
부동산액(만원)	-	-.009	-.009
금융자산액(만원)	-	.007	.007
주택소유D	.023	-	.023
자녀의 경제적지지D	.043	-	.043
현재 경제활동D	-	.028	.028
자존감	.046	.113	.159
우울감	-.157	-.033	-.190

($r=.530$), 만성질환수($r=-.421$)로 주관적 생활수준과 자존감은 삶의 질과 정적 상관을, 우울감과 만성질환수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미치는 경로분석의 결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보여주는 경로는 <그림 1>, <표 7>과 같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이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총효과(.400)는 직접효과(.307)와 매개변수인 자존감 및 우울감을 통한 간접효과(.093)로 이루어지며, 직접효과가 더 크다.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보인 변수는 주관적 생활수준으로, 삶의 질에 정적 직접효과(.348)와 자존감을 통한 정적 간접효과(.022)를 보였으며,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며,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한다. 우울감은 부적 직접효과(-.157)와 부적간접효과(-.033)로 총효과(-.190) 역시 부적영향을 보이고 있다. 즉, 노인의 우울은 삶의 질을 낮추며, 자존감을 낮추는 매개효과를 보임으로써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은 직접효과(.046)과 정적 간접효과(.113)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정적 총효과(.159)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존감은 우울감을 낮추는 간접효과를 통해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연간총소득은 삶의 질에 대해 정적 직접효과와 정적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즉, 본인의 총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 높으며, 우울감이 낮아짐으로써 삶의 질이 높다. 교육수준은 삶의 질에 대한 정적 직접효과를 가지며 또한 간접효과,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은 매개효과를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만성질환수는 삶의 질에 부적 직접효과와 부적 간접효과로 부적 총효과(-.056)을 보이고 있다. 만성질환이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으며, 높은 자존감과 낮은 우울감을 매개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 만성질환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은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과 같은 경로를 보여 준다. 성별은 우울감을 통한 부적 간접효과와 부적 직접효과를 통해 삶의 질에 부적 총효과(-.042)를 보였다. 즉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우울의 수준이 높으며, 삶의 질 또한 낮았다. 연령은 매개변수를 통한 부적 간접효과(-.026)만을 보였으며, 배우자유무는 정적 간접효과(.016)만을 보였다. 즉,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이 높아짐으로써 삶의 질이 낮아진다. 또한 배우자를 둔 노인의 우울감이 배우자 없는 노인에 비해 낮으며, 낮은 우울감으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정순돌과 이선희(2011)는 유배우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은 결과에 대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부부단독형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유무가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노인의 현재 경제활동참여는 삶의 질에 간접효과만을 보였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자존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노년기의 경제활동이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을 고무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남기민과 정은경(2011)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노인의 경제상태와 행복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자아존중감이 경제상태와 행복 간의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존감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윤명숙과 이묘숙(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특성 중 부동산액과 금융자산액 또한 간접효과만을 보였다. 이들은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심리적 변수인 자존감과 우울감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데, 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클수록,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우울감을 낮춤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 주택소유와 자녀의 경제적 지지는 정적 직접효과만을,

자녀동거여부는 부적 직접효과만을 보이고 있다. 즉, 이들 변수는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한 영향 없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과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생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자존감은 삶의 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각각의 변수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이며, 특히 주관적 생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의 순으로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것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 즉, 노인의 소득이나 자산보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만성질환의 수보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을 갖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객관적 생활여건보다는 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들이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수준과 건강이 중요한 자원임을 시사해준다. 한편 삶의 질 영향요인 중 우울과 자존감이 부각됨으로써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으나 부정적 정서인 우울이 긍정적 정서인 자존감에 비해 삶의 질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은 노년기의 우울을 초래하는 고독, 소외, 사회적 활동 및 교류의 부재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와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던 현재 경제활동참여, 연령, 배우자유무, 부동산액, 금융자산액 등이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변

수들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존감과 우울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연령은 자존감과 우울감을 경유한 부적 효과를, 부동산액 및 금융자산액은 우울감을 통한 부적 효과를, 그리고 현재 경제활동참여는 자존감을 통한 정적 효과와 우울감을 매개로 한 부적 효과를 보였다. 특히 우울을 경유해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로부터 노년기에 경험하는 고령, 배우자의 사망, 자산 감소 등 많은 생활사건과 상실의 경험이 부정적인 심리와 정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존감과 우울감은 노인의 삶의 질의 독립변수인 동시에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이다. 노인의 자존감과 우울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각각 주관적 건강상태였으며, 다음으로는 주관적 생활수준으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배우자 유무, 총소득, 금융자산액이 우울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즉, 노인의 우울감은 객관적, 주관적 경제 상태를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연령,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이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형적인 노화에 따른 문제점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예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노인 개인과 사회가 고령자의 부정적 정서와 심리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길어진 노년기 동안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처기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소득과 일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들의 경제활동실태를 파악한 결과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44% 수준이며, 현재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는 경우와 앞으로도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때 현재 경제활동에서 얻는 근로소득이 많지 않으며, 조사대상 노인들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효과보다는 역할 유지, 자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적인 생계유지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인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의 직종, 임금수준, 참여이유 등에 큰 편차가 없었던 결과 경제활동참여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의 경제활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경로를 통해 삶의 질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명숙과 이묘숙(2012)이 노인의 경제 상태와 행복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며 자아존중감이 경제 상태와 행복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그로 인한 경제적 여유가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견해와 유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노인들에게 경제활동이 단순히 소득을 창출하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일을 통한 활동적 이미지, 사회경제적 지위의 획득,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 등을 중시하며 그로부터 자존감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삶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물질적 보수 이상의 의미는 갖는 것으로서 노인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 확대를 모색하는 사회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한편 노인의 경제활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은 현재 근로소득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 또는 경제활동의 목적이 생계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자립적 생활이나 활동성, 일을 매개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에 더 의미를 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종과 종사상의 지위, 근로소득수준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기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으로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는 분석을 시도한다면 노년기 경제활동의 의미와 비중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노년기가 진전될수록 노인의 자녀에 대한 의존, 사회 및 국가의 지원의 필요성이 커진다. 본 연구에서 자녀동거가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결과는 자녀에 대한 의존과 부양이 노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자녀의 지원과 부양에 대한 노부모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녀의 경제적인 지원이 일방적인 것인지 부모 자녀 간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자원의 교환 관계에서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2), 62-76.
- 2) 김동배·김상범·심수민(2012).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1), 289-303.
- 3) 김동배 박은영(2007). 여성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일반, 비수급 빈곤, 수급 빈곤 여성노인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339-358.
- 4) 김미령(2006). 전기·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2-222.
- 5)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6) 김미령(2012).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 질 영향요인 차이분석. 한국노년학, 32(1), 145-161.
- 7) 김연희·김기순(200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지, 7, 157-189.
 - 8) 김수현·강현정·김윤정(2008). 농어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1), 51-71.
 - 9) 김윤정·안정선·강인(2008).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23-42.
 - 10) 남기민·정은경(2011).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325-348.
 - 11) 노병일·모선희(2007).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1) : 53-69.
 - 12) 림금란·김희경·안정선(2011).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과의 관계 : 사회적 지지, 사회적 활동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한국노년학회지, 31(1), 33-47.
 - 13) 박경희(2005).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박순미(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연구, 53, 305-332.
 - 15) 성혜영(2005). 성공적 노화 모델 연구 :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신경인(2009).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신성일·김영희(2013). 노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변인들의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4(6), 3673-3690.
 - 18) 오창석(2012).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과 삶의 질이 우울과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 6(2), 79-191.
 - 19) 윤명숙(2007). 도시·농촌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음주 및 삶의 질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281-310.
 - 20) 윤명숙·이묘숙(2012). 노인의 경제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2), 397-413.
 - 21) 임승희·노승현(2011).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 연구. 한국노년학, 31(1), 1-14.
 - 22) 정경희(2012). 노인의 가족생활 실태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10, 6-16.
 - 23) 정순돌·이선희(2011).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 :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3개년도(1994, 2004, 2008년) 결과 비교. 한국노년학, 31(4), 1229-1246.
 - 24) 정진경·김고은(2012). 노년기 부모-성인자녀 간 지원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2(3), 895-912.
 - 25) 최성재·장인협(2003).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26) 통계청(2011). 장래 인구추계. 통계청.
 - 27) 한경혜·홍진국(2000). 세대 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 28) 한형수(2008).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347-372.
 - 29) 허성호·김종대·정태연(2011). 취업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노년학, 31(4), 1103-1118.
 - 30) Aquino, J. A. & Russel, D. W.(1996). Employment status, social support, &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logy, 43(4), 480-489.
 - 31) Ball, R., & Chernava, K.(2008). Absolute income, relative inci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 497-529.
 - 32) Berg, A. I., Hassing, L. B., McClearn, G. E. & Johansson, B.(2006). What matters for life satisfaction in the oldest-old?. Aging & Mental Health, 10(3), 257-264.
 - 33) Bowling, A. & Windsor, J.(2001). Towards the good life : A population survey of dimens ions of quality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 55-81.

- 34) Chou, K. L. & Chi, I.(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1), 1-14.
- 35) Edwards, J. N., & Klemmack, D. L.(1973). Correlations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4), 497-502.
- 36) Hilleras, P. K., Jorm, A. F., Herliltz, A. & Winbald, B. (2001). Life satisfaction among the very ol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1(1), 71-90.
- 37) Neugarten, B. I., Havigust, R. J. & Tobin, S. S.(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1), 134-143.
- 38) Katz, S.(2000). Busy bodies : Activity, aging, and the management of everyday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4(2), 135-152.
- 39) Klemmack, D. L. & Roff, L. L.(1984). Fear of personal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9, 756-758.
- 40) Koenig, H. G.(1995). Religion and health in later life. Minnesota: Fortress Press.
- 41) Riddick, C. C.(1985). Life satisfaction determinants of older males & females, *Leisure Sciences*, 7(1), 47-63.
- 42) Rogers, R. G.(1995).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long-lived and healthy individual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1), 35-58.
- 43) Roh, S. H.(2010). The impact of religion, spirituality &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immigrant older adults, New Yor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44) Rowe, J. W. & Kahn, R. L.(1998). Successful aging, *Gerontologist*, 37, 433-441.
- 45) Shephard, R. J.(2002). Gender, Physical activity, and Ageing. London, CRC Press.
- 46) Steinkamp, M. W. & Kelly, J. R.(1987). Social integration, leisure activity, &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 Activity theory revisited.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25(4), 293-307.
- 47) Sugisawa, H., Shibata, H., Houhham, G. W., Sugohara, Y. & Liang, J.(2002). The impacts of socialities in depressive symptom in U. S. and Japanese Elderly, *Journal of Social Issues*, 58(4), 785-804.
- 48) Tran, T. V., Wright, R. & Chatters, L.(1991). Health, stress, psychological researche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older blacks, *Psychology and Aging*, 6, 100-108.

- 투 고 일 : 2015년 12월 30일
- 심 사 일 : 2016년 1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2월 22일